

8월 중국 무역 동향

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0. 09. 10(목)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● 요약

○ (수출) 8월 중국 수출은 전년동기 대비 9.5% 증가

- 컴퓨터 및 주변기기, 방직실 및 직물(마스크 등)의 수출 호조세가 8월에도 지속
-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반면, 향후 경쟁국 공장의 조업재개로 몇 개월 후에는 증가세가 완만해 질 것으로 예상

○ (수입) 8월 중국 수입은 전년동기 대비 2.1% 감소

- 수입 1위 품목인 집적회로는 수입 물량 및 금액 모두 증가, 2위 품목인 원유는 단가 하락으로 물량은 증가하고 금액은 감소
- 중국의 뉴SOC 정책 추진, 점진적인 내수 회복, 자원제품 가격 반등 등 원인으로 수입 실적도 점차 플러스 전환이 예상

1 수출입 동향

- 8월 수출은 9.5% 증가한 2,353억 달러, 수입은 2.1% 감소한 1,763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589억 달러 흑자를 기록
- 1~8월 수출은 2.3% 감소한 1조 5,716억 달러, 수입은 5.2% 감소한 1조 2,826억 달러로 무역수지는 2,891억 달러 흑자임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19	2020(1~6월)	7월	8월	1~8월
수 출	24,984(0.5)	10,988(-6.2)	2,376(7.2)	2,353(9.5)	15,716(-2.3)
수 입	20,769(-2.8)	9,310(-7.1)	1,753(-1.4)	1,763(-2.1)	12,826(-5.2)
수 지	4,215	1,678	623	589	2,891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8월 수출 증가는 개인 방호용품 및 재택근무 용품의 수요 증가에 주로 기인
 - 중국 기업들의 조기 업무재개 및 빠른 생산능력 회복도 중요한 요인
 - 팬데믹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경쟁국들의 생산 중단 등 요인도 존재
 - 작년 8월 수출이 -1.0%로 저조한 실적을 기록한바 있어 이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이 있음
- 향후 수출 전망에 대해 중국 연구기관들은 지나치게 비관할 필요가 없다고 평가했으며, 해외 연구기관들은 현재의 수출 증가세 지속이 어려울 것으로 평가
 - (쑤닝금융연구원) 앞으로 코로나19 백신이 전면 보급되고 글로벌 공급 능력이 전면 회복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
 - (차이신연구원) 미중 무역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올해 수출 감소폭이 5%를 초과하지는 않을 것임
 - (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) 중국의 수출 전망에 대해 너무 비관할 필요가 없음
 - (HSBC) 기타 지역 공장들이 점차 조업재개가 되면 중국의 출하량 증가세 유지가 어려움
 - (TS Lombard)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몇 개월 후 완만해 질 것으로 보이며 투자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함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상무부 연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수출입 실적 회복의 주요 원인은 기업들의 업무재개 조기 실현 및 빠른 생산능력 회복임 - 일부 해외국가들의 방역 사태가 다소 진정되면서 외부 수요가 확대 - 중국정부의 금융 및 무역지원 정책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무역업계의 어려움을 효과적으로 해소
	쑤닝(苏宁) 금융연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수출 실적 확대는 중국의 전면적인 조업재개 실현에 기인. 비교적 완비된 중국의 산업체인 구성이 이번 방역 사태에서 그 우위 구현 - 8월 수입 실적 감소는 원유 등 자원제품 가격 인하에 주로 기인 - 중국내 자동차 시장의 부진으로 자동차 수입 규모도 감소 - 동남아 지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 및 2018년 이래 미중 무역 분쟁 등 원인으로 ASEAN이 앞으로 중국의 최대 무역 파트너 유지 예상 - 미국이 11월 대선 이전에는 무역 분야의 안정성 도모 예상, 대선 종료 이후에는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 있음 - 앞으로 중국의 수출입 실적은 안정적인 회복세 예상. 코로나19 백신 전면 보급 및 글로벌 공급 능력 전면 회복 전까지 중국의 수출이 여전히 성장세 유지 예상
	차이신(財信) 연구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8월 수출 증가는 전년의 기저효과도 원인이 됨('19.8월 수출 -1.0%) - 8월 수출을 지탱하는 품목은 여전히 방역용품과 재택근무용 제품임 - 미중 무역관계가 여전히 불확실하지만 올해 수출 감소폭이 5%를 넘지 않을 것임
	교통은행 금융연구센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/4분기는 세계경제의 최저점이었을 가능성이 큼 - 해외 조업재개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세계수요가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면 앞으로 중국의 수출 전망은 너무 비관할 필요 없음 - 중국의 뉴SOC 정책 추진, 점진적인 내수 회복, 자원제품 가격 반등 등 원인으로 수입 실적도 점차 플러스 전환 예상
해외	노무라증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의 수출 증가는 개인 방호용품 및 재택근무 용품의 수요 급증, 팬데믹 사태의 영향을 받은 경쟁국들의 수출 감소 등에 기인
	HSBC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타 지역의 생산 중단으로 중국의 수출 증대 결과를 가져왔음 - 미중 무역관계 갈등 심화에 대한 불안 심리가 출하량 증가 촉진 - 기타 지역 공장들이 점차 조업재개가 되고 중국산 제품에 대한 수요가 다시 원래 수준을 회복하면 출하량 증가세 지속이 어려움
	TS Lombard <small>*영국계 금융분석기관</smal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3개월 연속된 중국의 수출 증가세는 하반기 중국 경제성장 뒷받침 - 개인 방호용품 및 컴퓨터 등 재택근무 용품의 수요가 중국의 수출 견인. 따라서 현재의 수출 증가세가 몇 개월 후 완만해 질 수 있음 - 중국의 원자재 수입 증가에도 불구하고 투자 전망은 여전히 불확실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(9.9일 현재)

- (국가별 동향) EU(2.1%) 및 ASEAN(3.7%)으로의 수출이 증가, 미국(-3.6%), 중남미(-8.0%), 아프리카(-5.0%) 등 지역·국가로의 수출은 감소
 - 동북아경제권 내 홍콩(-8.5%), 일본(-2.7%), 한국(-3.1%) 등에 대한 수출은 감소세를 보인 반면, 동남아시아의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8.9%) 수출은 증가세 지속
 - 수입의 경우, EU(-6.8%), 일본(-1.4%), 한국(-4.1%), 중남미(-1.5%), 미국(-2.9%), 호주(-7.5%), 독일(-10.0%) 등 대부분 지역에서 감소세를 보인 가운데, ASEAN(3.9%) 및 대만(10.6%), 브라질(5.5%) 등으로부터의 수입은 증가

< 1~8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증감률	국가별	금액	증감률
1	미국	2,661	-3.6	*ASEAN	1,839	3.9
2	*EU	2,450	2.1	*EU	1,560	-6.8
3	*ASEAN	2,327	3.7	대만	1,212	10.6
4	홍콩	1,608	-8.5	일본	1,092	-1.4
5	일본	909	-2.7	한국	1,089	-4.1
6	*중남미	894	-8.0	*중남미	1,065	-1.5
7	한국	708	-3.1	미국	782	-2.9
8	*아프리카	691	-5.0	호주	757	-7.5
9	베트남	671	8.9	독일	631	-10.0
10	독일	548	3.9	브라질	545	5.5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*EU 및 ASEAN 등의 실적에는 상기 개별국가들의 실적이 포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8.2%), 2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6.7%), 4위 집적회로(비중 4.6%), 5위 휴대폰(비중 4.4%) 등의 수출이 각각 전년동기 대비 5.1%, 33.4%, 11.3%, 5.5%씩 증가
 - 수입 1위 품목인 집적회로(비중 16.8%)는 전년동기 대비 수량 및 금액이 각각 22.5%, 11.8% 증가. 2위 원유(비중 9.4%)는 전년동기 대비 물량은 12.1% 증가, 금액은 23.8% 감소

< 1~8월 중국의 TOP10 수출 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품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,282	5.1	8.2
2	방직실 및 직물	-	-	1,048	33.4	6.7
3	의류 및 부자재	-	-	826	-12.9	5.3
4	집적회로	1,597 억개	16.5	715	11.3	4.6
5	휴대폰	5 억 7,895 만대	-2.1	695	5.5	4.4
6	플라스틱제품	-	-	507	11	3.2
7	가전제품	20 억 4,954 만대	4.9	397	10.5	2.5
8	자동차부품	-	-	336	-16.3	2.1
9	가구 및 부품	-	-	333	-1.6	2.1
10	오디오/비디오 기기 및 부품	-	-	319	-3.8	2.0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 1~8월 중국의 TOP10 수입 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위	품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증감률	금액	증감률	비중
1	집적회로	3,335 억개	22.5	2,151	11.8	16.8
2	원유	3 억 6,752 만톤	12.1	1,210	-23.8	9.4
3	철광석 및 정광	7 억 5,992 만톤	11.0	706	7.5	5.5
4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341	4.7	2.7
5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,623 만톤	9.4	327	-7.6	2.6
6	식량	8,744 만톤	21.8	311	15.1	2.4
7	미단조 동 및 동재	427 만 1,744 톤	38.1	262	27.3	2.0
8	대두	6,474 만톤	15.0	250	11	2.0
9	자동차 및 새시	52 만대	-26.6	246	-24.1	1.9
10	의약품	13 만 9,596 톤	-1.8	243	6.4	1.9

출처 : 중국 해관총서

- 8월 말 발표된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의 51.1보다 소폭 하락한 51.0을 기록
- 하위 지표 중 신규 수출 주문지수는 전월의 48.4에서 49.1로 소폭 증가하며 회복세 지속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	'20. 1Q	'20. 상반기	7월	8월
소비시장 성장률(%)		-19.0	-11.4	-1.1	-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%)		-16.1	-3.1	-1.6	-
산업생산 증감률(%)		-8.4	-1.3	4.8	-
PMI (%)		-	-	51.1	51.0
CPI (%)		4.9	3.8	2.7	2.4
PPI (%)		-0.6	-1.9	-2.4	-2.0
실업률 (기말, %)		5.9	5.7	5.7	-
외국인직접투자 (억 \$)		312(-12.8)	679(-4.0)	91(12.2)	-
외환보유고 (억 \$, 기말)		30,606	31,123	31,544	-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	-	-	7.0088	-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291(-8.4)	614(-6.4)	117(2.5)	109(-3.0)
	수 입	239(-7.0)	514(-5.0)	92(-2.3)	82(-0.8)
	수 지	52	100	25	27

출처 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
주: 8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는 잠정치